

單一 피·사동접미사와 二重 피·사동접미사의

형태소 목록에 대한 검토:

남광우(1962)와 구분관(1998)을 중심으로

김한결*

I. 머리말

본고는 15세기 중세한국어의 단일 피·사동접미사와 이중 피·사동접미사의 형태소 목록을 검토하는 것이 목적이다. 본고가 대상으로 하는 것은 남광우(1962)와 구분관(1998)에서 제시된 이중 피·사동접미사들이며, 특히 그 중에서도 15세기의 피·사동접미사들이다.

현대한국어에서도 ‘세우다’, ‘재우다’ 등의 사동사에서 드러나듯이, 단일한 어형만으로는 설명이 잘 되지 않는 사동접미사들이 있다. 본고에서는 그러한 이중사동접미사가 15세기 중세한국어자료에서 문중되고 있음을 검토할 것이다. 또한 접미사가 두 개 복합된 형태인 것이 사동접미사뿐만 아니라 피동접미사에서도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단일한 피·사동접미사의 형태소 목록이 정리되어야 할 것이다.

본고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먼저, 2장에서는 단일 피·사동접미사의 형태소 목록을 검토할 것이다. 단일피동접미사 목록을 검토하고, 그 이후에 단일사동접미사 목록을 검토할 것이다. 단일피동접미사 목록은 김주필(1988)과 구분관(1998)의 논의를 중심으로 검토할 것이다. 또한 단일사동

*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과정

접미사 목록은 고영근(1997)과 구본관(1998)의 논의를 중심으로 검토할 것이다. 다음으로, III장에서는 이중 피·사동접미사의 형태소 목록을 검토할 것이다. 이중 피·사동접미사의 형태소 설정의 필요성을 먼저 제시하고, 이중 사동접미사, 이중피동접미사의 순서로 형태소 목록과 해당 예들을 검토할 것이다. 여기서 검토의 대상이 되는 것은 남광우(1962)와 구본관(1998)에서 제시된 예들이다. 끝으로, IV장은 본고의 맺음말로써, 지금까지 검토한 내용들을 요약·정리할 것이다.

II. 단일 피·사동접미사의 형태소 목록에 대한 검토

1. 피동접미사 형태소

일반적으로 학교문법을 비롯한 대부분의 논의들에서는 현대한국어의 피동 접미사 형태소로서 ‘-아, -하, -라, -기’를 설정하고 있으며, 그것은 별다른 이견 없이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렇지만 중세한국어의 피동접미사 형태소 설정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 많은 이견이 있다. 다음의 (1)은 지금까지 논의된 피동접미사 이형태의 목록이다.

- (1) ㄱ. 고영근(1997): -아, -하, -기
 ㄴ. 구본관(1998): -이(i)-, -이(fi)-, -하, -기
 ㄷ. 김주필(1988): -이(i)-, -이(fi)-, -하, -기, -라
 ㄹ. 남광우(1962): -아, -하, -라, -기
 ㄹ. 안병희(1959, 1978): -ㅣ-, -아, -하, -기
 ㅂ. 이기문(1998): -하, -ㅂ-, -ㅎ-, -으-
 ㅅ. 이상억(1980): -아, -애-, -하, -기
 ㅇ. 정승철(2007): -아, -이(fi)-, -하, -기
 ㅈ. 한재영(1984): -아, -하, -기
 ㅊ. 허웅(1975): -아, -하, -기

중세한국어의 피동접미사의 이형태 최대형은 김주필(1988)이 제시한 ‘-이(i)-’, ‘-이(fi)-’, ‘-히-’, ‘-기-’, ‘-리-’ 등의 다섯 개이고, 최소형은 허웅(1975) 등이 제시한 ‘-이-’, ‘-하-’, ‘-기-’ 등의 세 개다. 이렇듯 학자들마다 피동접미사의 이형태가 각기 다르게 설정된 것은, 김주필(1988)이 지적인 바와 같이 구체적인 방법이나 기준을 설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형태 목록들을 도출했기 때문이다.

여러 이형태 중에서 어느 하나를 형태소로 설정한다면, 그 형태소를 통해서 다른 이형태들을 공식적인 형태·음운·통사규칙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¹⁾ 그렇지만 대부분의 논의에서 설정했던 피동접미사 ‘-이-’, ‘-히-’, ‘-기-’로는 김주필(1988)이나 구본관(1998)에서 제시된 여러 형태소들을 공식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다. 그러한 의미에서 중세한국어의 자료에서 문증되는 다양한 형태의 피동접미사들을 단순히 ‘-이-’, ‘-히-’, ‘-기-’ 등 세 개의 형태소로만 설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다양한 형태소 목록을 제시한 김주필(1988), 구본관(1998)의 피동접미사 목록을 기준으로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다.

김주필(1988)과 구본관(1998)의 피동접미사 형태소 목록은 완전히 동일하지 않다. 김주필(1988)과 구본관(1998)에서는, 문헌에서 ‘-이(j)-’, ‘-이(i)-’, ‘-이(fi)-’, ‘-이-’²⁾, ‘-히-’, ‘-기-’³⁾, ‘-리-’ 등⁴⁾으로 나타나는 여러 형태들을

- 1) 이것은 최명옥(2008)의 태도를 취한 것이다. 최명옥(2008)에서는 공식적인 순수음운규칙의 여부를 기준으로 단일형태소와 복합형태소를 분류하고 있다. 즉, 공식적인 순수음운규칙에 의한 교체는 이형태 관계가 되고, 그 밖에 형태규칙과 통사규칙에 의한 교체는 어휘화한 이형태로서 복합형태소 관계가 되는 것이다.
- 2) 김주필(1988)이나 구본관(1998)에서는 피동접미사 ‘-이-’를 ‘-이(i)-’의 이형태로 보고 있다. 이것은 남광우(1962)에서부터 지적한 것처럼 ‘-이-’가 ‘-이’로 수의적으로 교체될 수 있다는 사실 때문이다. 그렇지만 단순히 수의적으로 교체가 된다는 사실만으로 ‘-이-’가 ‘-이-’의 이형태가 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이것은 사동접미사 ‘-우-’에 대한 설명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i) 婆稚는 엷미^이다 혼 마리니 (석보상절, 13: 9)
 - (ii) 解脫相은 諸法에 엷미^이디 아니홀씨오 (법화경언해, 3: 24b)
- 3) (1)의 대부분의 논의들에서는 ‘-기-’를 피동접미사로 인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기-’가 출현하는 예문들을 보면 ‘-기-’를 피동접미사로서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
 - (i) 아즈미 오매 몰엷그디 다 들기^니 꼭른 비치 柴門에 뫼놏다 (두시언해, 초간

각각의 음운론적 환경에 따라 몇 개의 형태소로 정리하고 있다.⁵⁾ 다음은 김주필(1988)과 구본관(1998)의 피동접미사 형태소 목록과 그것의 음운론적 환경을 정리한 것이다.

(2) 김주필(1988)

- ㄱ. -이(i)-: 모음으로 끝나는 용언 다음
- ㄴ. -이(fi)-: ‘y, r, (β), z’로 끝나는 용언 다음
- ㄷ. -하-: 무성폐쇄음으로 끝나는 용언 다음(단, 시는 자음군단순화를 먼저 겪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음.)
- ㄹ. -라-: r 뒤의 fi가 ri로 변화함으로써 15세기 후기에 출현함.
- ㄹ. -가-: ‘ㄹ(ㄹ포함), ㅅ(ㅅ포함)’으로 끝나는 용언 다음

(3) 구본관(1998)

- ㄱ. -이(i)-: 어기의 말음이 ‘츠, 프, 흥, 러, 시’, 일부의 리, ‘ㄹ/르’변칙, ‘ㅂ’변칙, 일부의 모음
- ㄴ. -이(fi)-: 어기의 말음이 하향이중모음 j, 일부의 모음, 르, ‘ㄷ’변칙, ‘ㅅ’변칙
- ㄷ. -하-: 어기의 말음이 ‘ㄱ, ㄷ, ㅂ, ㅅ’, 일부의 ‘리, ㅅ’
- ㄹ. -가-: 어기의 말음이 ‘ㄹ, ㅼ, ㅅ’

김주필(1988)과 구본관(1998)의 피동접미사 형태소 설정에 대한 논의 중에서

본, 10: 6a)

(ii) 소곰 브레 모뎀 두셔 번 드믄고 (구급간이방, 6: 69b)

(iii) 브리 솟글혀 슌기터니 (월인석보, 23: 81a)

(iv) 블근 약대의 고기를 프른 가마에 슌만 내오 (두시연해, 초간본, 11: 17b)

그것은 (i), (ii)와 같은 이른바 ‘특수어간교체’와 관련된 어간들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슌-’과 ‘드믄-’는 특수어간교체로서 뒤따르는 어미의 음운 환경에 따라 어간이 교체된다. 따라서 (iii)의 ‘드믄-’는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통합한 것으로 본다면, (i)의 ‘슌-’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통합한 것이 된다. 따라서 (i)의 피동접미사는 ‘-이(i)-’가 된다. 그렇지만 ‘ㅼ’를 어기의 말음으로 가지는 ‘슌-’은 그러한 설명을 할 수 없다. 만약에 여기서도 ‘-가-’를 피동접미사로 인정하지 않고 ‘-기-’를 어기의 일부라고 한다면, 여기는 ‘슌-’이 된다는 설명을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예문을 통해 피동접미사 ‘-가-’의 설정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 4) 이상의 피동접미사 형태소들을 편의상 {-이(i)-}계 피동접미사로 통칭하도록 한다. 이것은 구본관(1998)의 태도를 취한 것이다.
- 5) 개별형태소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나 관련 예문은 각각의 논의를 참조하도록 한다.

‘-히-’와 ‘-기-’에 대한 시각은 대체로 일치한다. 차이를 보이는 것은 ‘-이(i)-’와 ‘-리-’에 대한 시각이다.

먼저, 김주필(1988)은 피동접미사가 모음으로 끝나는 용언과 통합할 때 ‘-이(i)-’가 통합한다고 보고 있는 반면, 구본관(1998)은 ‘-이(hi)-’가 통합한다고 보고 있다. 김주필(1988)은 피동접미사 ‘-i-’와 사동접미사 ‘-i-’와의 관련성 속에서 설명을 시도하고 있다. 15세기 중세한국어에서 사동접미사가 모음으로 끝나는 어기와 통합하면, 어기의 말모음과 합쳐져(활음화) 이중모음으로 되는 일이 많았는데, 이것이 피동접미사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이다.

- (4) ㄱ. 더 ㄴ애 건내쇼셔 (월인석보, 8: 99a) (구본관 1998: 269)
- ㄴ. 王이 돌해 薶희샤 (월인석보, 2: 49b) (구본관 1998: 269)
- ㄷ. 지뵈 드러 𦉰터니 (석보상절, 6: 16a) (구본관 1998: 269)

(4)는 사동접미사 ‘-i(j)-’에 대한 관련 예문들이다. 김주필(1988)은 이러한 예문들을 통해 피동접미사의 ‘-i-’도 비슷한 양상을 띠 것으로 보고 ‘-i-’를 모음으로 끝나는 용언과 통합한다고 설정했다.⁶⁾

반면에 구본관(1998)은 모음으로 끝나는 선행어기 뒤에 통합하는 피동접미사를 ‘-hi-’로 보고 있다. 그것은 사동접미사와는 달리, 피동접미사는 모음으로 끝나는 선행어기와 통합하면, 이중모음을 이루는 대신에 독립된 음소를 이루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 (5) ㄱ. 엇데 샷기 치는 𦉰의게 더디이노 (두시언해, 초간본, 24: 35a) (구본관 1998: 251)
- ㄴ. 世間사 法에 𦉰동기이디 아니하야 (월인석보, 2: 37b) (구본관 1998: 251)

(5)의 예문에서 나타나듯이, 구본관(1998)은 피동접미사가 모음으로 끝나는 선행어기와 통합할 때는 ‘-i-’나 ‘-hi-’로 나타난다고 보고 있다.

다음으로, 김주필(1988)은 ‘-리(ri)-’를 피동접미사로서 인정하는 반면, 구

6) 뒤에서도 언급하겠지만, 구본관(1998)은 어기가 모음으로 끝났을 때 통합하는 사동접미사를 처음부터 ‘-j-’로 설정하고 있다.

본관(1998)은 ‘-리(ri)-’를 ‘-이(i)-’의 이형태로 보고 있다. 이것은 어간과 접사의 경계에 대한 문제와 직결된다. 김주필(1988)과 구본관(1998)이 공통적으로 지적한 것처럼, 피동접미사 ‘-리(ri)-’와 관련된 것은 ‘ㄹ/르’변칙용언들이다. 다음의 (6)은 ‘-리-’를 피동접미사로 볼 수도 있는 예문들이다.

- (6) ㄱ. 그오놀린 사르미 (능엄경언해, 9: 66) (김주필 1988: 52), (구본관 1998: 253)
 ㄴ. 네흔 그오누르이니오 (구급간이방, 상, 25) (구본관 1998: 253)

김주필(1988)은 (6ㄱ)의 예문을 [[그오놀+리+ㄴ]처럼 분석할 수 있다고 보고 여기서 도출되는 ‘-리(ri)-’를 피동접미사로 설정했다. 그렇지만 구본관(1998)이 지적했듯이, 실상 (6ㄱ)에서 도출된 ‘-리(ri)-’의 ‘ㄹ(r)’는 어기의 일부이다. 주지하다시피 중세한국어의 ‘ㄹ/르’변칙용언은 모음어미와 통합할 때, 어간의 끝음소는 ‘ㄹㅇ’이나 ‘ㄹ르’의 연쇄로 구성된다(점차 ‘ㄹㅇ’형태는 ‘ㄹ르’형태로 합류된다). 따라서 (6ㄱ)은 [[그오놀리+이+ㄴ]으로 분석해야 하며 피동접미사 ‘-리(ri)-’를 굳이 설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구본관(1998)의 주장이다.⁸⁾

7) 주지하다시피, ‘누르-’는 ‘놀르-’과 함께 특수어간교체를 보이는 어기이다. ‘누르-’는 자음 앞에서 선택되는 어기이고, ‘놀르-’는 모음 앞에서 선택되는 어기이다. 따라서 피동접미사 ‘-이-’가 통합한다면 ‘놀르+이 → 놀라’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6ㄴ)은 자음과 통합하는 어기인 ‘누르-’와 통합했다. 따라서 (6ㄴ)의 예문은 다소 예외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6ㄴ)에서 제시된 예문은 오히려 특이한 경우이다. 비슷한 경우로 ‘니르~닐ㅇ-’(起)의 예가 있다.

(i) 開國聖王이 聖代를 니르어셨다 (신도가)

(ii) 그디 이제 븨 ㄹ름 흐르논 ㄹ레 빅출 닐어 가느니 (두시언해, 초간본, 25: 56b)

‘니르-’는 자음 앞에서, ‘닐ㅇ-’는 모음 앞에서 선택된다. (ii)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통합하여 ‘닐ㅇ-’이 선택되었으나, (i)는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통합하는 것이 아닌데도 ‘니르-’가 선택되었다.

8) 물론 구본관(1998)은 현대한국어의 ‘홀리다’(흐르다), ‘갈리다’(가르다) 등에서 나타나는 피동접미사 ‘-리-’의 존재를 인정한다. 그렇지만 그것은 16세기 이후에 등장하기에 구본관(1998)에서는 15세기 피동접미사로 설정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본고에서도 15세기 중세한국어의 자료에만 한정할 것이기에 구본관(1998)과 동일한

피동접미사 형태소의 목록 설정과 더불어,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하나 더 존재한다. 바로 ‘·’나 ‘-’로 끝나는 용언어간이 ‘{-이-}’계 피동접미사와 통합할 때, ‘·’나 ‘-’가 탈락하지 않는 현상이다.

- (7) ㄱ. 우리들히 至極 긋보고 쏘 두리버 늑외야 (월인석보, 14: 76a)
 ㄱ'. 내 그제 座에 이서 모미 긋바 오직 空과 無相과 無作과 念코 (법화경언해, 2: 179a)
 ㄴ. 이 圓頓에 드는 門일씩 더욱 쁘과 헛니라 (월인석보, 13: 28a)
 ㄴ'. 쁘스물 더욱 뻘 精進 헛니 (석보상절, 24: 15b)

일반적으로 15세기 중세한국어에서 ‘·’나 ‘-’ 모음으로 끝나는 용언어간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통합하면, 어간의 ‘·’나 ‘-’가 탈락한다. (7ㄱ)의 ‘긋보’와 (7ㄴ)의 ‘쁘은’은 각각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통합하면서, 어간의 ‘·’와 ‘-’가 탈락하여 ‘긋바’와 ‘뻘로’ 실현되었다. 그렇지만 피동접미사가 어기와 통합할 때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 (8) ㄱ. 才儼 헛 사르문 다 올라 쁘이거늘 어린 사르문 오직 수머 뻘뻘노라 (두시언해, 초간본, 19: 5b)
 ㄴ. 이그티 虛空이 쁘스글 困^ㅎ야 나노 과 뻘케 호문 虛와 實^라라 서르 뻘이디 아니^ㅎ야 (능엄경언해, 3: 89b)

(8ㄱ)과 (8ㄴ)의 ‘쁘’는 각각 피동접미사 ‘{-이-}’와 ‘{-ㅣ이-}’와 통합되어 있다. 만약 (7)처럼 선행어기의 말음 ‘-’가 탈락한다면, (8ㄱ)과 (8ㄴ)은 각각 ‘뻘거늘’과 ‘뻘이디’처럼 나타나야 할 것이다.⁹⁾ 그렇지만 피동접미사와 통합했

태도를 취하도록 한다.

- 9) (8ㄴ)의 ‘뻘이면’에서 ‘이’가 선행하는 활음에 축약되지 않는 까닭도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중세한국어에서는 선행하는 ‘i’나 ‘j’에 ‘i’가 통합하면, 동음 모음 생략에 의해 후행하는 ‘i’는 축약된다. 그렇지만 ‘뻘이면’은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데, 이것은 두 가지 설명 방법이 있다. 먼저, ‘쁘+이→쁘이’에서 모음 ‘-’와 ‘ㅣ’의 연쇄에 따른 하이투스 회피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모음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중간에 활음이 삽입된 것이다. 다음으로, ‘뻘이면’의 ‘이’를 ‘fi’로 볼 수 있다. 즉, ‘뻘+fi→뻘이’가 된 것이다. 둘 중 어느 설명 방법을 택하더라도 어기의 말음 ‘-’가 탈락하지 않는 까닭에 대해서는 설명이 가능하다.

을 때는 선행어기의 말음이 탈락하지 않는다는 점을 볼 때, 이것은 분명히 일반적인 현상과는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이것은 굴절에서의 통합 양상과 조어법에서의 통합 양상이 다르다는 것을 뜻한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구본관(1998)은 모음으로 끝나는 어기와 통합하는 피동접미사는 ‘-i’가 아니고 ‘-fi-’라고 설정했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을 취한다면, 어간의 말모음 ‘·’나 ‘-’가 탈락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어간의 말모음인 ‘·’와 ‘-’, 그리고 피동접미사의 일부인 ‘-i-’ 사이에 ‘fi’가 개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입장은 김주필(1988)에서도 동일하게 받아들이고 있다.¹⁰⁾

따라서 본고에서는 구본관(1998)의 논의를 따라, 15세기 중세한국어의 피동접미사 형태소를 ‘-이(i)-, -이(fi)-, -하-, -기-’ 등의 네 개로 설정¹¹⁾하고 이후의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다.

2. 사동접미사 형태소

일반적으로 학교문법을 비롯한 대부분의 논의들에서는 현대한국어의 사동접미사 형태소로서 ‘-아-, -하-, -리-, -기-, -우-, -구-, -추-, -애-’¹²⁾ 등을 설정

10) 다만 이러한 관점을 취할 경우, 선행어기의 말모음이 ‘·’와 ‘-’인 용언어간이 사동접미사와 통합하는 경우를 설명하는 데 문제가 생긴다. 피동접미사는 대체로 ‘fi’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으나 사동접미사의 ‘fi’는 약화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것은 사동접미사의 부분에서 다시 논의하도록 한다.

11) 뒤에서도 언급하겠으나, 남광우(1962)와 이상익(1980)은 이중 피·사동접미사를 설명하면서 현대한국어의 이른바 ‘피해피동’의 의미로 쓰이는 예들을 함께 제시하고 있다(잘리우다, 먹히우다 등). 그렇지만 이들은 모두 현대한국어의 예들이라는 점에서 논의에서 제외된다. 16세기 중세한국어의 자료에서도 ‘-구-’라는 접미사가 문중되기는 하지만, 이것은 피동접미사가 아니라 사동접미사로 쓰인 것이다.

(i) 曲禮에 跪오되 禮는 절츠를 넙구디 아니흐며 (소학연해, 3: 6b)

(ii) 거상을 三年의 넙구디 아니흐은 (효경연해, 25b)

중세한국어의 ‘넙’은 사동사로서 ‘넙-’을 가졌는데, 일부 문헌에서는 ‘넙구-’도 쓰인 것으로 보인다. ‘넙구-’는 점차 일부 방언에서만 쓰이게 되다가 소멸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현대한국어의 ‘넙가-’로 계승되었다.

12) ‘-애-’도 있으나 이것은 ‘없애다’ 하나에만 해당하는 사동접미사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문법서나 논의에서는 사동접미사 목록에서 제외되어 있다.

하고 있으며, 그것은 별다른 이견 없이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렇지만 피동접미사 형태소처럼 중세한국어의 피동접미사 형태소 설정 역시 학자들 사이에 이견이 있다. 다음의 (9)는 지금까지 논의된 사동접미사 이형태의 목록이다.

- (9) 가. 고영근(1997): -아, -하, -가, -오(fio)/우(fiu)-, -호/후-, -으/으-
 나. 구본관(1998): -이(i)-, -이(fii)-, -ㅣ(j)-, -하-, -가-, -오(o)/우(u)-, -오(fio)/우(fiu)-, -호(ho)/후(hu)-, -고-
 다. 안병희(1959, 1978): -아-, -오-, -이오-
 라. 이기문(1998): -하-, -봉-, -ㅎ-, -으-
 마. 이상억(1980): -아-, -애-, -가-, -하-, -호/후-, -고/구-, -오/우-, -ㅅ/ㅅ-, -으/으-, -ㅣ오/ㅣ우-, -외/위-

학자들마다 사동접미사의 이형태가 각기 다르게 설정된 것은, 역시 학자들마다 구체적인 방법이나 기준을 설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형태 목록들을 도출했기 때문이다.

여러 이형태 중에서 어느 하나를 형태소로 설정한다면, 그 형태소를 통해서 다른 이형태들을 공시적인 형태·음운·통사규칙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 사동접미사의 형태소 목록을 가장 많이 제시한 논의는 이상억(1980)이다. 이상억(1980)은 ‘사동·피동어간형성접미사의 중첩어’라는 용어를 제시하면서 ‘-ㅣ오/ㅣ우-, -외/위’ 등의 형태소를 제시하고 있다. 이것은 본고가 검토하고자 하는 바와 가장 밀접한 입장에 있는 논의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2장의 목적은 피·사동접미사의 단일 형태소 목록을 설정하는 것이다. 단일 피·사동접미사의 목록이 먼저 설정되어야지만 그것들이 복합된 이중 피·사동접미사를 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고영근(1997), 구본관(1998)에서 제시한 단일사동접미사 형태소 목록을 기준으로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다.

고영근(1997)과 구본관(1998)의 사동접미사 형태소 목록은 완전히 동일하지 않다. 고영근(1997)과 구본관(1998)에서는, 문헌에서 ‘-ㅣ(j)-’, ‘-이(i)-’, ‘-이(fii)-’, ‘-애-’, ‘-하-’, ‘-가-’, ‘-리-’, ‘-오(o)-’, ‘-우(u)-’, ‘-오(fio)-’, ‘-우(fiu)-’, ‘-우-’, ‘-호-’, ‘-후-’, ‘-고-’, ‘-으-’, ‘-으-’ 등¹³⁾으로 나타나는 여러

형태들을 각각의 음운론적 환경에 따라 몇 개의 형태소로 정리하고 있다.

고영근(1997)과 구본관(1998)의 논의에 따르면, 15세기 중세한국어의 사동 접미사 형태소 목록은 크게 {-이-}계열과 {-오/우-}계열¹⁴⁾의 두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편의상 구본관(1998)의 유형 분류를 중심으로 하되, 고영근(1997)과의 대비를 통해 사동접미사 형태소 목록을 논의하도록 하겠다. 다음의 (10)은 {-이-}계열 사동접미사에 대한 구본관(1998)의 사동접미사 형태소 목록과 그것의 음운론적 환경을 정리한 것이다. 고영근(1997)은 사동접미사 형태소 목록의 음운론적 환경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구체적인 환경을 제시한 구본관(1998)을 먼저 제시하고 뒤이어 고영근(1997)의 해당 형태소를 제시하도록 한다.

(10) 구본관(1998)의 {-이-}계열 사동접미사

- ㄱ. -이(i):- 어기의 말음이 ‘ㄱ’, 일부의 ‘ㄹ’, ‘시, 스, 히, 췌, 프, 츠, 트, 씨’, ‘ㅂ’변칙, ‘ㄷ/ㄹ’변칙, 일부의 ‘ㄹ’
- ㄴ. -이(fii):- 어기의 말음이 ‘ㄷ’변칙, ‘ㅅ’변칙, 일부의 ‘ㄹ’, 일부의 모음, 하향 이중모음 ‘j’
- ㄷ. -ㅣ(j):- 어기의 말음이 일부의 모음
- ㄹ. -하:- 어기의 말음이 ‘ㄷ, ㅂ, 스, ㅅ’, 일부의 ‘ㄹ’
- ㅁ. -가:- 어기의 말음이 ‘ㄱ, ㅅ, 스’

(11) 고영근(1997)의 {-이-}계열 사동접미사

- 아-, -하-, -가-

고영근(1997)과 구본관(1998)의 {-이-}계열 사동접미사 형태소 설정에 대한 논의는 대체로 일치한다. 차이를 보이는 것은 ‘-ㅣ(j)-’와 ‘-이(fii)-’에 대한 시각이다. 먼저, 고영근(1997)은 형태소 ‘-이-’를 설정했는데 그것이 ‘-이(i)-’와 ‘-이(fii)-’를 동시에 아우르는 개념으로 보인다.

(12) ㄱ. (道士) 브를 브타니 (월인석보, 2: 74b) (고영근 1997: 242)

-
- 13) ‘-오(o)-’, ‘-우(u)-’, ‘-오(fio)-’, ‘-우(fiu)-’, ‘-우-’, ‘-호-’, ‘-후-’, ‘-고-’ 등의 사동접미사 형태소를 편의상 {-오/우-}계 사동접미사로 통칭하도록 한다. 이것은 구본관(1998)의 태도를 취한 것이다.
 - 14) ‘-오-’와 ‘-우-’의 교체는 모음조화에 의한 어사 분화이다.

- ㄱ'. 셋 그테서 브리 븐더라 (월인석보, 23: 81a) (고영근 1997: 242)
- ㄴ. 城 밖기 닐굽 덜 일어 중 살이시고 (월인석보, 2: 77a) (고영근 1997: 242)
- ㄴ'. 우리 始祖 | 慶興에 사르샤 王業을 여르시니 (용비어천가, 3) (고영근 1997: 242)

일반적으로 여기에 ‘-이(i)-’가 통합한다면 어기의 끝자음이 연철되어 표기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12ㄱ')의 ‘-블-’에 해당하는 사동사 ‘브타’가 실현되는 것이다. 그렇지만 (12ㄴ')의 ‘-살-’에 해당하는 사동사는 ‘사라’가 아니라 ‘살이’로 실현되었다. 따라서 이때의 ‘-이-’는 ‘-i-’가 아닌 ‘-fi-’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고영근(1997)에서는 그러한 언급이 없이 (12ㄱ)과 (12ㄴ)을 하나의 형태소로 보고 있다.

반면에 구본관(1998)은 ‘-i-’와 ‘-fi-’를 분리시켜서 설정했다. 구본관(1998)은 사동의 ‘-이-’가 피동의 ‘-이-’와는 달리 ‘-ㄹ-’로 끝나는 어기와 통합할 때 대부분의 경우는 ‘-i-’를 가지나, 일부의 경우(10ㄴ)에만 ‘-fi-’로 나타난다고 설명했다.¹⁵⁾ 따라서 구본관(1998)은 이러한 경향성을 볼 때, {-이-} 계열 사동접미사에는 ‘-fi-’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구본관(1998)은 (4)의 예문을 통해서 사동접미사 ‘-i-’와 ‘-fi-’와 더불어 ‘-j-’도 사동접미사의 일부로 포함시킬 것을 주장하고 있다. 편의상 (4)를 다시 가져오기로 한다.

- (13) ㄱ. 더 ㄹ새 건내쇼셔 (월인석보, 8: 99) (구본관 1998: 269)
- ㄴ. 王이 돌해 철타샤 (월인석보, 2: 49) (구본관 1998: 269)
- ㄷ. 지비 드러 재더니 (석보상절, 6: 16) (구본관 1998: 269)

구본관(1998)은 (13ㄱ), (13ㄴ), (13ㄷ)을 각각 ‘건나+ | (j)’, ‘철타+ | (j)’, ‘자

15) 구본관(1998: 272-273)은 사동의 {-이-}는 피동의 {-이-}의 차이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구본관(1998)에 따르면 사동의 {-이-}는 피동의 {-이-}에 비해 ‘-fi-’의 ‘fi’ 약화가 더 두드러진다. 따라서 모음으로 끝나는 어기와 통합할 때 ‘fi’ 약화가 이루어져 선행하는 어기의 말모음과 합쳐져 하향이중모음으로 바뀌기도 하고, 혹은 ‘fi’가 그대로 쓰여 독립된 음절을 이루기도 하는 것이다.

+ l(j)’로 분석하고 있다. 그렇지만 15세기 중세한국어에서 ‘i’가 모음으로 끝나는 선행요소와 통합할 때, 거의 예외없이 활음화되었다는 사실을 볼 때, 굳이 ‘j’를 형태소로서 설정할 필요가 있을지 의문이 든다. 선행요소와 통합할 때 ‘i’가 ‘j’로 변한다는 음운과정만을 설정하면, ‘j’를 형태소로서 설정해야 하는 부담이 줄어든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구분관(1998)에서 사동접미사로서 설정했던 ‘j’를, 사동접미사의 목록에서 제외하고자 한다.

다음은 {-오/우-}계열 사동접미사에 대한 구분관(1998)의 사동접미사 형태소 목록과 그것의 음운론적 환경을 정리한 것이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구분관(1998)의 사동접미사 형태소 목록을 먼저 제시하고 고영근(1997)의 목록을 뒤이어 제시하도록 한다.

(14) 구분관(1998)의 {-오/우-}계열 사동접미사

- ㄱ. -오(o)/우(u): 어기의 말음이 일부의 ‘ㄷ, ㅌ, ㅈ, ㅊ’변칙, 일부의 ㄹ, ‘ㄹ/르’변칙
- ㄴ. -오(ho)/우(hu): 어기의 말음이 일부의 ㄹ, ‘이(i)’, 하향이중모음 ‘l(j)’
- ㄷ. -호/후: 어기의 말음이 일부의 ‘ㄷ, ㅈ, ㅊ’
- ㄹ. -고: 어기의 말음이 ㄹ

(15) 고영근(1997)의 {-오/우-}계열 사동접미사

- 오/우-, -호/후

고영근(1997)과 구분관(1998)의 {-오/우-}계열 사동접미사 형태소 설정에 대한 논의는 대체로 일치한다. 차이를 보이는 것은 ‘-오(ho)/우(hu)-’와 ‘-고-’에 대한 시각이다. 먼저, 고영근(1997)은 형태소 ‘-오/우-’를 설정했는데 그것이 ‘-오(o)/우(u)-’와 ‘-오(ho)/우(hu)-’를 동시에 아우르는 개념으로 보인다.

(16) ㄱ. (如來) 神通力を 나토샤 (월인석보, 서, 6a) (고영근 1997: 244)

- ㄱ’. 話頭 | ㅅㄹㄷ이 아니ㅎ며 ㄴ디 아니ㅎ야 自然히 나드면 (몽산법어, 8b) (고영근 1997: 244)

ㄴ. 太子 | 道理 일우샤 (석보상절, 6: 5b) (고영근 1997: 244)

ㄴ’. 東征에 功이 ㅁ 이나 (용비어천가, 41) (고영근 1997: 244)

이것은 앞의 {-이-}계열 사동접미사에서의 설명과 동일하다. 일반적으로 어기

에 ‘-오(i)-’가 통합한다면 어기의 끝자음이 연철되어 표기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16ㄴ)의 ‘일-’에 해당하는 사동사는 ‘이루-’가 아니라 ‘일우-’로 실현되었다. 따라서 이때의 ‘-우-’는 ‘-u-’가 아닌 ‘-fiu-’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고영근(1997)에서는 그러한 언급이 없이 (16ㄱ)과 (16ㄴ)을 하나의 형태소로 보고 있다.

반면에 구분관(1998)은 ‘-o/u-’와 ‘-fi_o/fiu-’를 분리시켜서 설정했다.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10ㄴ)의 환경에서는 ‘-fi_o/fiu-’를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더불어 피동과 사동의 {-이-}가 여기 말음이 ‘ㅅ’변칙일 때는 ‘-fi-’를 이형태로 갖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살펴본다면 사동의 {-오-}의 이형태도 ‘-fi_o/fiu-’가 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것이 구분관(1998)의 설명이다.

고영근(1998)은 사동접미사 ‘-으/으-’를 설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구분관(1998)에는 없는 형태소이다. ‘-으/으-’는 {-이-}계열도 아니고 {-오/우-}계열도 아니라서 고영근(1998)은 다른 범주로 설정하고 있다. 고영근(1998)에서 기술하고 있는 사동접미사 ‘-으/으-’의 음운·형태적 환경과 그 예문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7) ‘-으/으-’ 사동접미사: 어기가 ‘ㄹ’로 끝난 몇몇 자동사와 타동사 어근에 통합함.
- ㄱ. 나랏 小民을 사르시리잇가 (용비어천가, 52) (고영근 1997: 246)
 - ㄱ'. 나뭇 그에 브터 사로딘 (석보상절, 6: 5a) (고영근 1997: 246)
 - ㄱ". 城 밧기 날굽 덜 일어 중 살이시고 (월인석보, 2: 77a) (고영근 1997: 242)
 - ㄴ. 돌히며 梅檀香이며 沈水香이며 木樨이며 디새며 홀 ㄹ로 搭을 이르습거나 (석보상절, 13: 51b) (고영근 1997: 246)
 - ㄴ'. 내히 이러 바르래 가느니 (용비어천가, 2) (고영근 1997: 246)
 - ㄴ". 太子 | 道理 일우샤 (석보상절, 6: 5b) (고영근 1997: 244)

(17ㄱ)과 (17ㄴ)은 각각 (17ㄱ')의 ‘살-’과 (17ㄴ')의 ‘일-’에 대한 사동사 ‘사르-’와 ‘이르-’이다. (17ㄱ)과 (17ㄴ)은 각각 사동접미사 ‘-으/으-’에 의해서 파생되었지만, 이것은 (17ㄱ")과 (17ㄴ")의 ‘살이-’와 ‘일우-’처럼 사동접미사 ‘-이(fi)-’와 ‘-우(fiu)-’에 의해서도 파생이 되었다. 이것은 이기문(1998) 등에

서 논의했던 이른바 ‘특수사동접미사’에 해당하는 어형들이다. 특수사동접미사는 비록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위의 (17)에서처럼, 다른 {-이}나 {-오/우}사동접미사가 결합해야 하는 자리에도 올 수 있는 것으로 문증된다.¹⁶⁾

특이한 점은, 고영근(1997)을 제외한 대부분의 다른 논의들에서는 이러한 ‘-으/으’ 사동접미사를 ‘특수사동접미사’로 명명하고 사동접미사의 일부로 제안하면서도, 굳이 이것을 사동접미사의 목록으로 설정하지 않은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다.¹⁷⁾ 그렇지만 ‘-으/으’ 사동접미사를 다른 사동접미사의 형태소에서 공식적인 음운·형태·통사규칙으로 설명할 수 없다면 이것은 별개의 형태소로 설정해야 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고영근(1997)에서 제시한 ‘-으/으’ 사동접미사도 15세기 사동접미사의 형태소로 설정하도록 한다.

피동접미사 형태소 목록 설정에서의 문제점과 마찬가지로, 사동접미사 형태소 목록 설정에서도 해결해야 할 점이 있다. 바로 ‘·’나 ‘一’로 끝나는 용언어간이 ‘{-이}’계 사동접미사와 통합할 때의 문제이다. 앞서 본고는 김주필(1988)과 구분관(1998)의 논의를 받아들여, 피동접미사의 ‘-이’ 형태소를 ‘-fi-’로 설정하기로 했다. 여기서는 사동접미사의 ‘-이’도 피동접미사와 마찬가지로 ‘-fi-’로 설정하기로 한다. 이것은 피동접미사와 사동접미사 사이의 관계성을 중요시한 것이다. 그렇지만 사동의 ‘-fi-’는 피동의 ‘-fi-’에 비해서 ‘fi’가 약화되는 일이 많다. 따라서 ‘-fi-’에서 ‘fi’가 약화되고 남은 ‘i’는, 선행하는 어기가 ‘i’이거나 ‘j’일 때 동음모음 생략에 의해서 나타나지 않게 된다(이상 구분관(1998: 247-257)). 따라서 사동접미사 ‘-이’를 ‘-fi-’로 설정한다면, 그것이 피동접미사 ‘-fi-’에 비해서 왜 약화가 더 잘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상으로 본고에서는 고영근(1997)과 구분관(1998)의 논의를 따라, 15세기

16) 같은 어기에 통합되더라도 일반사동접미사와 특수사동접미사가 통합된 어간은 각각 다른 의미를 지닌다(이기문 1998: 161).

(i) 살이다: 어떤 곳에 살게 하다. 사르다: 목숨을 살리다.

(ii) 일우다: 어떤 일을 성취하다. 이르다: 집이나 탑을 세우다.

17) 이것은 특수사동접미사의 용례가 적다는 점과 더불어 그것이 통합하는 어기가 제한되어 있다는 점 등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중세한국어의 사동접미사 형태소를 ‘-이(i)-’, ‘-이(fi)-’, ‘-히-’, ‘-오(o)/우(u)-’, ‘-오(fio)/우(fiu)-’, ‘-호/후’, ‘-고’, ‘-으/으-’ 등의 아홉 개로 설정하고 이후의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다.

III. 이중 피·사동접미사의 형태소 목록에 대한 검토

1. 이중 피·사동접미사 설정 문제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현대한국어의 사동접미사에는 ‘-이-’, ‘-히-’, ‘-리-’, ‘-기-’, ‘-우-’, ‘-구-’, ‘-추-’, ‘-애-’ 등이 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여기에 더해 두 개의 사동접미사가 합쳐진 것처럼 보이는 ‘-이우-’라는 사동접미사가 존재한다. 다음의 (19)는 ‘-이우-’가 나타나는 현대한국어의 예들이다.¹⁸⁾

- (18) ㄱ. 기자 회견장은 취재 기자들로 가득 차서 들어갈 틈도 없었다.
- ㄴ. 어머니가 독에 쌀을 가득 채웠다.
- ㄷ. 어젯밤 한숨도 못 잠다.
- ㄹ. 칭얼거리는 아기를 겨우 재워 놓았다.
- ㄷ. 길을 트다.
- ㄷ'. 벽을 띄워 통로를 만든다.

(18ㄱ)의 ‘차-’, (18ㄴ)의 ‘자-’, (18ㄷ)의 ‘트-’는 대당 사동사로서 각각 ‘채우-’, ‘재우-’, ‘띄우-’를 가진다.¹⁹⁾ 이들의 사동접미사는 ‘-우-’ 하나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그렇다고 이러한 단어에 개재된 사동접미사를 ‘-이우-’로 설정할 수는 없다. 이미 현대한국어에서는 (18ㄱ)의 ‘채우-’와 (18ㄴ)의 ‘재우-’의 ‘ㅈ’는 단모음으로 굳어져서, 사동접미사로서의 ‘-이우-’를 분석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반면에 (18ㄷ)의 ‘띄우-’에서는 활음 ‘ㅣ’로 변한 ‘-이-’를 통해 ‘-이우-’를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이상하게도 현대한국어의 사동접미사 형태소 목록에 대한 기존

18) (18)의 예문은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가져온 것이다.

19) 이들은 어기의 말음이 모음으로 끝나는 1음절 용언어간이라는 공통점을 지닌다.

의 논의들에서는 ‘-이우-’가 빠져있거나, 혹은 충분한 설명이 없이 예문으로만 제시되어 있다. 현대한국어의 사동접미사 목록으로서 ‘-아-, -하-, -리-, -가-, -우-, -구-, -추-, -애-’ 등을 제시하되, ‘-이우-’는 (18)에서 제시된 예문들이 등장할 때만 ‘-이우-’라는 형태소를 제시하면서 언급되고 있을 따름이다. 기존의 형태소에서 공시적인 음운·형태·통사적 규칙으로 설명이 불가능하다면, 이것도 역시 별도의 형태소로 설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듯 현대한국어에서 제한된 환경에서만 쓰이게 된 ‘-이우-’는 중세한국어에서도 문증된다. 15세기 중세한국어에서도 현대한국어의 ‘채우-’, ‘재우-’, ‘띄우-’처럼, 단일사동접미사가 아닌 두 가지 사동접미사가 복합된 형태의 사동접미사가 적지 않은 빈도로 문증된다. 또한 이러한 접미사는 사동접미사뿐만 아니라, 피동접미사로서도 존재한 것으로 보인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피·사동접미사를 ‘이중 피·사동접미사’²⁰⁾로 부르기로 한다.

남광우(1962)와 이상억(1980)은 이러한 이중 피·사동접미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먼저 남광우(1962)에서 언급한 이중 피·사동접미사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이상억(1980)에서 언급한 이중 피·사동접미사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편의상 남광우(1962)에서 이러한 접미사와 관련하여 결론 부분에서 논의한 내용을 아래에 제시하도록 한다.

(19) ㄱ. ‘-이오-, -와-, -이우-, -위-, -우우-’ 등이나 ‘-이아-, -히아-, -기아-, -리아-’ 등 보조어간²¹⁾은 이중적인 성격의 것이나 전자가 사동형화 구실을 하는

20) 구본관(1998: 293)에서도 이중사동접미사가 등장하기는 한다. 그렇지만 구본관(1998)은 이중사동접미사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지는 않다. 간단하게 사동의 {-이아}와 {-오아}가 중첩된 파생어들의 목록을 제시하면서 약간의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 구본관(1998: 291)은 사동접미사 ‘-아-’와 ‘-오-’가 서로 경쟁 관계에 있는 파생접미사들로서, 이것들이 함께 통합하는 예가 적은 까닭은 바로 ‘저지’에 의한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중사동접미사에 대해 언급했던 것처럼, 이중피동접미사도 언급될 것을 기대했으나 따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것은 애초에 구본관(1998)이 피·사동접미사들의 중첩된 형태보다는 단일한 형태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본고에서는 구본관(1998: 293)에 제시된 이중사동접미사들의 예들도 남광우(1962)의 예들과 함께 다루기로 한다.

21) 남광우(1962)에서 설정하고 있는 ‘보조어간’이라는 용어는 본고에서의 ‘파생접미

데는 ‘-오, -우’ 보조어간과 하등 다름이 없음과 같이 후자가 피동·사동 형화 구실을 함은 ‘-아, -하-, -가-, -리’ 보조어간과 하등 다름이 없다. (남광우 1962: 62)

- 나. ‘-이’ 계열 보조어간이 붙어 사동·피동형을 이름에 일정한 법칙을 구함이 어려워, 같은 ‘-이’ 계열 보조어간이 붙어 함께 사동·피동형을 이루는 경우도 있고, 사동·피동형만으로 전용(專用)되는 경우도 있다. (남광우 1962: 63-64)
- 다. 본동사 어간이나 보조어간 ‘-이’ 아래에는 다시 ‘-우’ 보조어간을 붙이는 경향이 늘어가는 듯이 보인다(밧하우다, 잘리우다, 갈리우다, 막하우다, 먹하우다, 빨리우다). (남광우 1962: 64)

(19ㄱ)은 이중 피·사동접미사의 기능에 대한 내용이다. 이중 피·사동접미사 중에서 ‘-이오-, -와-, -이우-, -위-, -우우’ 등은 사동접미사로 쓰이고, ‘-이아-, -히아-, -기아-, -리아’²²⁾ 등은 피동접미사와 사동접미사에 두루 쓰인다는 것이다. (19ㄴ)은 {-이-}계 피·사동접미사들이 출현하는 음운론적 환경이 일정하지 않음을 지적한 부분이다. 남광우(1962)는 특별한 음운론적 기준을 두고 형태소 목록을 정리하고 있지는 않다. 대신 용언어간의 말음, 피·사동접사의 종류에 따라서 목록을 정리하고 있다.²³⁾ 여기에 해당하는 남광우(1962)의 예들이 모두 현대한국어의 예들뿐이라서, (19ㄷ)에서 언급하는 ‘경향’을 설명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이상억(1980)은 이중 피·사동접미사들을 단일 피·사동접미사와 동일한 것으로 다룬다. 편의상 이상억(1980)에서 이중 피·사동접미사에 대해 언급한 부분을 아래에 제시하도록 한다.

- (20) ㄱ. 화자에 따라서는 ‘발리우다’의 사동성도 주장하지만 주로 피동성이 농후한 것 같다. 반대로 ‘알리다’((알다)에 대해서는 ‘알리우다’가 피동적이기

사’에 해당한다.

- 22) 남광우(1962)는 피·사동접미사로서 ‘-리’를 설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본고가 취하는 입장과는 반대되는 것이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본고는 구분관(1998)의 논의를 중심으로 피·사동접미사 ‘-리’의 ‘ㄹ’을 ‘ㄹ/르’ 변칙용언의 어기의 일부로 보고 있다. 따라서 이후의 논의에서는 ‘-리아’는 ‘-이아’와 함께 다루어질 것이다.
- 23) 다만 ‘사동·피동형만으로 전용되는 경우’라는 말이 명확하지 않다.

보다는 사동적 어감으로 느껴진다. (…중략…) 이론상으로 말하자면 ‘우’는 전형적 사동형태소이므로 앞의 것이 사동사일 때 중첩된 경우는 이중사동화, 피동사일 때는 피동·사동사이어야 옳을 것이다. 그러나 위의 ‘우’는 전혀 사동의 고유성을 보유하지 않은 형태소인 듯하다(특히 ‘불리우다’가 피동적이라는 점에서). (이상억 1980: 129-130)

- 나. ‘먹이우다’는 거의 사동으로만 인식되는 듯한데 ‘먹히우다’는 ‘히’에 강세가 있으면 전체가 피동으로, 그렇지 않을 때는 피동의 ‘사동’화로 즉 형태소의 대표적 기능대로 감지되는 듯하다. (이상억 1980: 130)
- 다. 필자가 조사한 바로는 중첩형에는 이 밖에도 ‘-이아’ ‘-고오’, ‘-고아’ 등의 중첩인 ‘울이이다’, ‘우이이다; 나토오다; 마초오다; 가도이다’ 등이 있고 심지어 삼중형이라고 볼 수 있는 ‘늪이이다’, ‘물뢰오다’, ‘바퇴오다’ 등이 있다. 그러나 이들이 처해 있는 문맥도 단순한 형태의 사동·피동사와 하나도 다른 점이 눈에 띄지 않은 것 같다. (이상억 1980: 133)

(20ㄱ)은 앞서 잠시 언급했던 피해피동의 이중피동접미사에 대한 내용이다. 현대한국어의 직관으로만 판단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나, 사동접미사 ‘-우’가 통합한 형태인 ‘-이우/ㅣ우’, ‘-우이/위’ 등이 피동적인 것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20ㄴ)은 접미사의 강세에 따라서 접미사의 성격이 변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강세가 강한 접미사 쪽으로 접미사의 성격이 바뀐다는 점을 지적했는데, ‘-하’는 ‘-우’보다 강세가 더 강하므로 이때의 이중접미사 ‘-히우’는 피동접미사로 인식되고, ‘-이’는 ‘-하’보다 강세가 약하므로 이때의 이중접미사 ‘-이우’는 사동접미사로 인식된다는 것이다. (20ㄷ)은 이중 피·사동접미사는 단일 피·사동접미사와 그 기능이 동일하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이것은 피·사동접미사 형태소가 세 개 통합된, 이른바 삼중 피·사동접미사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남광우(1962)과 이상억(1980)은 15세기 중세한국어의 이중 피·사동접미사에 대해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15세기 중세한국어의 이중 피·사동접미사는 몇 가지 유형이 있으며, 그 유형에 따라서 사동접미사 혹은 피·사동접미사로서 기능했다는 점, 이러한 이중 피·사동접미사는 단일 피·사동접미사와 기능상의 차이가 없다는 점 등이 그것이다.

만약 이중 피·사동접미사를 인정한다면, 그들이 어떻게 통합되었는지가 문제시된다. 일반적으로 단일 피·사동접미사는 $[X+\alpha]\rightarrow X\alpha$ (X: 어기, α :

접사)와 같은 구성이 된다. 그렇지만 이중 피·사동접미사를 설정한다면 그것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법의 구성이 가능하다. 먼저, $[[X+\alpha]+\beta]-X\alpha\beta$ (α : 첫 번째 접사, β : 두 번째 접사)로 설명하는 것이다. 이러한 구성을 따른다면 파생된 'X α '에 다시 피·사동의 기능을 하는 접사(β)가 덧붙는다고 봐야 한다. 그렇다면 이것은 'X α '가 생산적으로 쓰이는 동시에, 거기에 피·사동의 의미가 더 중첩된다는 식의 설명이 가능해야 한다. 하지만 이상역(1980)에서 지적했듯이, 중세한국어나 현대한국어에서의 이중 피·사동접미사에 의한 파생어들은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X+(\alpha+\beta)]-X\alpha\beta$ 로 설명하는 것이다. 만약 이 구성을 따른다면 접사가 먼저 파생된 뒤에 여기에 통합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접사가 서로 생산적으로 통합하는지, 그리고 그 접사의 기능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지만, 이것은 피·사동접미사들이 중첩됨으로서 생기는 의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중 피·사동접미사와 어기와의 통합 구조를 $[X+(\alpha+\beta)]-X\alpha\beta$ 로 보고자 한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첫 번째 접사인 α 와 두 번째 접사인 β 가 어떻게 통합하는지, 그리고 그 통합하는 결과가 어떻게 실현되는지 등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앞서 II.1에서는 '-이(i)-, -이(fi)-, -하-, -가-' 등의 네 개 형태소를 피동접미사로서 설정하고, II.2에서는 '-이(i)-, -이(fi)-, -하-, -오(o)/우(u)-, -오(fio)/우(fiu)-, -호/후-, -고-, '-으/으-' 등의 여덟 개 형태소를 사동접미사로서 설정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그렇지만 본고에서 설정한 피·사동접미사들 모두가 이중 피·사동접미사로 결합되지 않는다.²⁴⁾

먼저, 남광우(1962)에서 사동접미사로서 설정하지 않은 '-고-', '-으/으-' 등은 이중사동접미사로서도 기능하는지 여부는 알 수가 없다. 따라서 본고는 '-고-', '-으/으-'가 이중사동접미사의 첫 번째 접미사나 두 번째 접미사로서 기능하는지 여부는 고려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피동접미사와 사동접미사

24) 이것은 남광우(1962)가 고영근(1997)에서 제시한 '-으/으-' 사동접미사를 목록에 넣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른바 특수사동접미사라고 불리는 '-으/으-'를 목록에 넣는다고 하더라도, '-으-'나 '-으-'로 시작하는 이중 피·사동접미사의 존재를 설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에 따라, 도출되는 이중 피·사동접미사는 차이점을 보인다. 이론상 첫 번째 접사와 두 번째 접사가 통합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이-}계열+{-이-}계열’, ‘{-이-}계열+{-오/우-}계열’, ‘{-오/우-}계열+{-이-}계열’, ‘{-오/우-}계열+{-오/우-}계열’ 등 네 가지다(물론 이러한 경우의 수는 ‘-고-’와 ‘-으/오-’를 제외한 것이다). 네 가지 유형 중에서 피동접미사와 사동접미사 두 개의 경우로 쓰이는 것은 ‘{-이-}계열+{-이-}계열’ 뿐이다. 나머지 세 가지 유형은 사동접미사로만 쓰인다. 따라서 표기만을 기준으로 한다면, 사동접미사로서 쓰일 수 있는 이중사동접미사는 ‘-이오/이우-’, ‘-이오/이우-’, ‘-외/워-’, ‘-오이/우이-’, ‘-우우/오오-’ 등이다. 그리고 피동접미사와 사동접미사로서 동시에 쓰일 수 있는 이중 피·사동접미사는 ‘-이아-’, ‘-이아-’ 등이다.

남광우(1962)의 피·사동접미사 형태소 목록은 피동사과 사동사라는 구분 없이 단순히 음운론적인 환경만을 기준으로 하여 제시되어 있다. 또한 각 형태소는 ‘훈민정음제정(1443)~16세기 전반기’, ‘16세기 전반기 이후’, ‘현대어’ 등의 세 시기로 나누어 제시되어 있다. 본고는 II장에서 제시한 피·사동접미사 형태소 목록을 기준으로 하되, 남광우(1962)에서 제시한 형태소 목록들 중 이중 피·사동접미사들을 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시기로는 ‘훈민정음제정(1443)~16세기 전반기’ 중에서도 15세기 시기의 자료에만 한정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2. 이중사동접미사

먼저, 이중사동접미사의 목록을 검토하도록 한다. (19-ㄱ)에서 언급했듯이, 남광우(1962)는 ‘-이오-, -이우-, -외-, -워-, -우우-’ 등은 사동접미사로서 기능한다고 언급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설명이 필요하다.

먼저, 남광우(1962)가 제시한 이중사동접미사 중에서 ‘-이오-’와 ‘-이우-’에서 선행하는 사동접미사 ‘-이-’는 음절을 이루는 ‘이’가 아닌, 하향이중모음 ‘ㅣ(j)’로 보아야 한다. 제시된 예들을 종합해보면 ‘-이오-’와 ‘-이우-’의 ‘이’는 모음으로 끝나는 선행어간과 통합하여 활음화되기 때문이다. 남광우(1962)에서 제시된 예들 중에서는 자음으로 끝나는 선행어간과 통합하여 ‘-이

오'나 '-이우'를 이루는 예는 없었기 때문에 굳이 '이'를 '-i'로 볼 필요는 없다. 다음으로, '-외'와 '-위' 등에서 선행하는 사동접미사 {-오/우-}류는 모두 '-ho/hu-'이다. 만약 사동접미사가 '-o/u-'라면 선행어기의 끝자음이 연결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 다음으로, '-우우'에서 후행하는 '우'는 사동접미사 '-hu-'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중세한국어에서 동일모음이 결합될 경우 하나의 모음이 탈락하는데, 여기서는 탈락하지 않기에 이것은 단순모음 'u'가 아닌 것이다. 끝으로, '-i오-, -i우-'에서 후행하는 사동접미사 '-우'는 'u'가 아니라 'hu'로 보아야 한다. 모음과 모음이 결합할 때 일반적으로 모음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일환으로 활음첨가나 활음화가 일어나는데, '-i오'나 '-i우'가 '-i요'나 '-i유' 혹은 '-요'나 '-유'로 나타나는 일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광우(1962)에서 제시한 이중사동접미사는 결국 '-i오-, -i우-, -외-, -위-, -우우' 등이 된다. 이것을 유형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1) 15세기 이중사동접미사 유형

	첫 번째 접미사	두 번째 접미사	이중 접미사	제시 여부
ㄱ. {-이-}계열+{-이-}계열	i	hi	이이	◎
	j		ㅣ이	
ㄴ. {-이-}계열+{-오/우-}계열	i	ho	이오	×
		hu	이우	
	j	ho	ㅣ오	○
		hu	ㅣ우	
ㄷ. {-오/우-}계열+{-이-}계열	ho	j	외	○
		i	오이	×
	hu	j	위	○
		i	우이	×
ㄹ. {-오/우-}계열+{-오/우-}계열	o	ho	오오	×
		(h)u	오우	
	u	(h)o	우오	
		hu	우우	

(분류 기준과 기호 설명)

- i. 첫 번째 접미사: II장에서 제시했던 것을 기준으로 함.
 - ii. 두 번째 접미사: II장에서 제시했던 것을 기준으로 함.
 - iii. 이중접미사: 문헌에 드러나는 표기형을 기준으로 함.
 - iv. 제시여부: 남광우(1962)와 구본관(1998)에서 제시되었는지 여부임.
- ◎: 피·사동접미사 둘 다 가능한 예가 제시됨.
 ○: 사동접미사만 가능한 예가 제시됨.
 ×: 해당 예가 제시되지 않음.

특이한 것은, 적어도 15세기 문헌에서는 이중사동접미사 중에서 (21ㄱ) 유형은 피·사동접미사로 두 개의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 (21ㄴ) 유형 중에서는 선행하는 사동접미사가 ‘-i’인 것이 없다는 점, (21ㄷ) 유형 중에서는 후행하는 사동접미사가 ‘-i’인 것이 없다는 점, (21ㄹ) 유형 중에서는 ‘-오오’의 연쇄형 등이 없다는 점 등이다.

이상의 유형들을 남광우(1962)와 구본관(1998)에 나타난 예들을 통해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21ㄱ)의 유형은 III.3에서 다시 다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21ㄴ)~(21ㄹ)의 사동접미사의 예들만 제시하도록 한다. 편의상 각각의 유형별로 제시하도록 한다. 먼저 (21ㄴ) 유형이다.

(22) {-이-}계열+{-오/우-}계열: ‘-|오’, ‘-|우’

ㄱ. 테우:- 답(熱)²⁵⁾

味를 슬면 能히 테운 丸과 쇠죽이 ㄷ외오 (능엄경언해, 8: 97a)

cf) 더븐 煩惱는 煩惱 | 불ㄷ타 다라 나는 거실씩 답다 흐느니라 (월인석보, 1: 18a)

ㄴ. 도희오:- 도희(療)

너나된 약으로 도희오디 못 흐는 브름 마즌 병을 (구급간이방, 1: 28a)

25) 이현희(1993~1994)에서는 ‘답’ (편의상 ‘병’을 ‘ㅂ’로 표기함)이 ‘뿔’과 ‘溫’의 의미로 쓰이는데, ‘溫’의 의미로 쓰일 때 사동사로서 ‘더이’, ‘테’, ‘테우’, ‘데이’ 등을 갖는다고 언급했다. 이상 구본관(1998: 290) 재인용.

‘답’의 사동사로서 ‘더위’가 문중되지 않은 점도 특이하다. ‘답’에 사동접미사 ‘-이’가 통합하면 [답+이] → ‘더바’ > ‘더위’의 과정을 거칠 것이 기대된다. 그렇지만 ‘답’의 ‘ㅂ’가 탈락하고 거기에 곧바로 ‘-이’가 통합하게 되어, [더+이] > 테’와 같은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후 파생된 어간 ‘테’에 다시 사동접미사 ‘-우’가 통합하여 ‘테우’와 같은 어형이 생기게 된다.

- cf) 오직 아바넛 病이 도흐실시언딩 모를 百千 디위 브려도 어렵디 아니흐
니 (월인석보, 21: 216a)
- ㄷ. 띄우: 뜨-(浮)²⁶⁾
南너그로 瀧으로 올라 가는 帛를 띄우눅다 (두시언해, 초간본, 8: 57b)
cf) ㄹ 숲 ㅁ리 ㅂ砌砌에 뜨니 흐르느 ㅁ리 거를 헤티눅다 (두시언해,
초간본, 7: 31b)
- ㄹ. 칩오: 츠-(滿)²⁷⁾
媒女 | 功德 닛ㅁ사 三年을 칩오시니 (월인석보, 8: 79a)
cf) 摩訶栴檀 우물 ㅁ를 흐르 五百 디위움 길이더시니 三年이 츠니
(월인석보, 8: 91b)
- ㅁ. 톱오: ㅌ-(燒)²⁸⁾
시혹 地獄이 이쇼디 쇠로 새를 톱오느니 (월인석보, 21: 81a)
cf) 사르미 덩바기 우훗 火光이 다 기리 두서 자히로디 쯔 더운 ㅁ이
업서 ㅁ간도 ㅌ디 아니흐며 (능엄경언해, 9: 108b)
- ㅂ. 힘띄우: 힘뜨-(用)
多寶를 困흐산 한 사르물 힘띄우시니라 (법화경언해, 4:136b)
cf) 世間 救흐사 獄에 힘뜨시다 슬오믄 悲願을 讚歎흐습고 (법화경언해,
3: 127a)

다음으로 (21ㄷ) 유형이다.

(23) {-오/우-}계열+{-이-}계열: {-와-, -위-}²⁹⁾

- 26) 16세기의 자료에는 ‘뜨-’(飭)의 사동형인 ‘띄우-’도 문중된다.
飭 띄울 류 (訓蒙 下: 6a)
- 27) 남광우(1962)와 구분관(1998)에서는, ‘츠-’(冷)의 사동형인 ‘칩오-’도 문중된다고
했으나 해당 예문을 발견할 수 없었다.
- 28) 16세기의 자료에는 ‘ㅌ-’(賦)의 사동형인 ‘톱오-’도 문중된다.
賦 톱을 부 (훈몽 下: 1b)
- 29) 남광우(1962)의 ‘{-오/우-}계열+{-이-}계열’의 예 중에서 성립하지 않는 것이 있다.
주굴위-(皺)
(i) 方正은 모나미 반득 ㅎ씨오 充實은 주굴위디 아니 ㅎ씨다 (月釋 2: 41b)
(ii) 열날굽차힌 모미 주굴위디 아니 ㅎ시며 (월석 2: 56b)
‘주굴위-’는 ‘주굴-’의 사동사로 보고 ‘-위-’를 이중사동접사로 보았으나 이것은 잘
못된 분석이다. ‘주굴위-’가 사동사라면 거기에 대당 능동사 ‘주굴-’이 생산적으로
쓰여야 한다. 그렇지만 15세기와 15세기 이후의 중세·근대한국어 자료에서 ‘주
굴-’이 문중되는 예는 없었다. 이것은 ‘주굴위-’를 더 이상 분석할 수 없다는 뜻

- ㄱ. 니르위: 니르-(至)³⁰⁾
 남그믐 니르위여 불근 欄檻을 짓고 (두시언해, 초간본, 24: 54a)
 cf) 그 사르미 子息이 만흐야 열히어나 스물히어나 百數에 니르더니
 (월인석보, 17: 16a)
- ㄴ. 닛위: 닛-(繼)
 도와리흐야 뜨름 닛위여 머고딧 (구급간이방, 2: 54a)
 cf) 外江과 三峽과 서르 닛건마르 (두시언해, 초간본, 21: 18a)
- ㄷ. 알와: 알-(知)
 이제 世생尊존이 우리를 알외샤 니르사디 (월인석보, 15: 25b)
 cf) 제 알오 느닐 알외야 (능엄경언해, 8: 30a)
- ㄹ. 몰와: 므르-(乾)
 즉빅나모 동녁으로 향흔 니플 몰외야 디허 곶이 드외어든 (구급간이방,
 1: 109b)
 cf) 니피 저즈니 수플와 못괘 鬱密흐고 오시 므르니 벼개와 돛괘 몸도다 (두
 시언해, 초간본, 7: 7b)
- ㄴ. 걸위: 걸-(凝)
 나를 눈화서 諸王子를 뵈야 므르치니 기푸믈 걸위여 내야 فاي 더욱 秘
 密흐더니라 (두시언해, 초간본, 16: 17b)
 cf) 나그내 곧 곳가를 걸오 오니 (두시언해, 초간본, 20: 28a)
- ㄷ. 앓와: 앓-(首, 進)
 導師는 法 앓외느 스스이니 如來를 슬벗시니라 (석보상절, 13: 16a)
 cf) 무퇴 올라 將次스 길흘 아사 가느니 유무를 배플 바를 구궤 보내도다
 (두시언해, 초간본, 8: 53b)

그 다음으로 (21ㄹ) 유형이다.

(24) (-오/우-)계열+(-오/우-)계열: -우우-

느주우: 느-(緩)

느주위여 詔습을 그르츠면 罪責 니부미 진실로 맛당흔 배니라 (두시언

이 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남광우(1962)에서 제시한 ‘주궤위.’를 이중사동접미사에 의한 파생어로 설정하지 않도록 하겠다.

30) 15세기 중세한국어에서는 ‘니르위.’와 같은 의미로 쓰인 ‘닐위.’도 문중된다.

德 싸하 道 닐위여 法華 根源 머무믈 불기시니라 (월인석보, 17: 90a)
 주지하다시피 중세한국어에서 ‘니르.’는 ‘니를.’와 더불어 쌍형어간을 이룬다. 그렇지만 ‘니를위.’와 같은 어형 대신에 ‘닐위.’가 나타나는 것은 특이하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니르위.’와 ‘닐위.’의 관계는 성조로서도 확인 된다(‘니르위.’: LHH, ‘닐위.’: RH).

해, 초간본, 25: 38a)

cf) 道流의 새로 외요물 느지 接對호라 (두시언해, 초간본, 16: 22a)

(21ㄷ) 유형에는 ‘-오오’, ‘-오우’, ‘-우오’, ‘-우우’ 등 총 네 가지 가능한 형태가 있지만 실제로 제시된 것은 (24)의 ‘-우우’ 하나뿐이다. ‘-오우’나 ‘-우오’는 모음조화를 어기는 형태라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오오’가 제시되지 않은 것은 특이하다. ‘-우우’로 제시된 예는 ‘늦-’의 사동사인 ‘느주우’ 하나뿐이다.

3. 이중 피·사동접미사

다음으로, 이중 피·사동접미사의 목록을 검토하도록 한다. (19ㄱ)에서 언급했듯이, 남광우(1962)는 ‘-이아, -히아, -기아, -리아’ 등은 피·사동접미사로서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앞서 제안했던 것처럼, 본고에서는 ‘-리아’의 ‘ㄹ’을 ‘ㄹ/르’변칙용언 어기의 일부로 보고 있다. 그러므로 ‘-리아’는 ‘-이아’와 같은 부류가 된다. 다음으로, 남광우(1962)가 제시한 이중 피·사동접미사 ‘-히아’는 16세기 이후의 자료에서 일부 문중된다.³¹⁾ 본고의 대상은 어디까지나 15세기 문헌만이기 때문에, 이중 피·사동접미사 ‘-히아’는 제외된다. 끝으로, 남광우(1962)은 ‘잇기이다(牽)’의 한 가지 예를 통해서 이중 피·사동접미사 ‘-기아’를 도출하고 있다. 여기서 ‘기’의 ‘ㄱ’은 어기 ‘잇-’의 일부분이다.³²⁾ 따라서 ‘-기아’는 잘못 도출된 이중피·사동접사에 해당

31) 남광우(1962)가 제시한 이중 피·사동접미사 ‘-히아’의 예들은 다음과 같다.

(i) 어티이다, 언티이다: 얻(得)

일즉 예도적의 어티인 배 되여 비전쥬에 끌려 간더니 (동국신속삼강행실도, 효자, 1: 30b)

예도적의 언티인 배 되여 장춘 오옥을 넘게 되거늘 (동신신속삼강행실도, 열녀, 7: 7b)

(ii) 잡피이다: 잡(捕)

도적의 잡피인 배 되어 (동국신속삼강행실도, 열녀, 5: 54b)

32) 물론 본고와 남광우(1962)는 ‘-가’를 피·사동접미사로 인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잇기이다’와 같은 예에서 ‘기’를 피·사동접미사라고 인정하면, 이 ‘기’는 어기의

하므로 본고에서는 인정하지 않도록 한다. 따라서 본고에서 이중 피·사동 접미사로 논의할 것은 ‘-이이’ 하나만 해당된다.

‘-이이’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이 필요하다. 첫째, ‘-이이’에서 선행하는 피·사동접미사 ‘-이’는 음절을 이루는 ‘-i’와 그렇지 못한 ‘-j’로 나누어진 다. 그러므로, ‘-이이’를 ‘-ㅣ이’와 ‘-이이’로 나누어서 제시하고자 한다. 둘째, ‘-이이’에서 후행하는 피·사동접미사 ‘-이’는 앞서 II장에서 논의했던 관점에 따라 피·사동접미사 ‘-fi-’로 보고자 한다.³³⁾

(25) 15세기 이중 피·사동접미사 유형

	첫 번째 접미사	두 번째 접미사	이중 접미사	제시여부
{-이-}계열+{-이-}계열	i	fi	이이	◎
	j		ㅣ이	

- i. 첫 번째 접미사: II장에서 제시했던 것을 기준으로 함.
- ii. 두 번째 접미사: II장에서 제시했던 것을 기준으로 함.
- iii. 이중접미사: 문헌에 드러나는 표기형을 기준으로 함.
- iv. 제시여부: 남광우(1962)와 구본관(1998)에서 제시되었는지 여부임.
◎: 피·사동접미사 둘 다 가능한 예가 제시됨.

(25)의 유형을 남광우(1962)와 구본관(1998)에 나타난 예들을 통해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편의상 ‘-이이’와 ‘-ㅣ이’를 구별하여 제시하도록 한다.

(26) ‘-이이’ 이중 피·사동접미사

- 잇기이(-사동): 잇-(牽)³⁴⁾

일부이기도 하고, 피·사동접사이기도 하다는 식의 이상한 설명을 할 수밖에 없다.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잇기이다’에 통합된 피·사동접미사는 ‘-이이’이다.

- 33) ‘-i’나 ‘-j’ 뒤에 통합하는 ‘-이’ 피·사동접미사에 대한 구본관(1998)의 설명이 주목된다. (5)에서 제시되었듯이, 15세기 중세한국어의 문헌에서는, ‘-i’나 ‘-j’ 뒤에 통합하는 ‘-이’를 ‘-fi-’로 볼 수 있다는 것이 구본관(1998)의 관점이다. ‘-fi-’의 ‘fi’는 15세기 이후 약화되어 사라지지만, 16세기 이후에도 표기상으로는 ‘-이’가 쓰이고 있다. 구본관(1998)은 이러한 현상을 ‘어기와 접사를 구별하려는 의식’, 혹은 ‘파생접사에 강세를 두려는 언중들의 의식’이라고 보고 있다.

프렛 莽이 브르래 잇기이니 프른 씨 긴 듯호도다 (두시언해, 초간본, 11: 21a)

cf) 하늬 길헤 驥驪를 잇그며 雲臺에 므릿 남글 혀 가는 듯도다 (두시언해, 초간본, 24: 10a)

이중 피·사동접미사 중에서 남광우(1962)에서 제시된 것은 ‘잇기아.’하나 뿐이다. ‘잇기아.’는 어기 ‘잇.’에 ‘-이아.’라는 이중사동접미사가 통합하여 형성된 용언어간이다.

(27) ‘-이아.’ 이중 피·사동접미사³⁵⁾

ㄱ. 췌이-(피동): ㅅ-(觸)

별 췌인 독에 디새로 그 췌인 우홀 췌고 (구급간이방, 6: 63a)

cf) 병호 사리릭 머리로서 가슴 비와 밧 ㅁ장 ㅅ딛 츠거든 ㅁ라곰 호야 (구급간이방, 1: 66b)

ㅅ 우형 ㅅ불휘들 ㅅ름 ㅅ딛 말오 (구급간이방, 3: 52a)

ㄴ. ㅅ뵤이-(사동): ㅅ뵤-(借)

돈 一百 貫을 ㅅ뵤어 上官호매 ㅅ뵤려 호더니 그 ㅅ뵤 ㄷ 님자히 ㅅ뵤이고 (불정심다라니경, 상, 12b)

cf) 董永이 아비 죽거늘 무똥 거시 업서 ㄴ딛그에 도늘 ㅅ뵤어 묻고 (삼강행실도, 효자, 런던, 11)

ㄷ. ㅅ꺨이-(피동·사동): ㅅ꺨-(掘)

帝ㅣ 무덤을 ㅅ꺨이니 오직 ㅅ ㅅ꺨에 호 ㅅ ㅅ꺨 신이 잇더라 (남명집언해, 상, 52a)

cf) 무더 브리저라 호고 ㅅ호 ㅅ ㅅ호 ㅅ꺨 ㅅ 호 가매 나니 (삼강행실도, 효자, 런던, 12)

ㄹ. ㅎ이-(사동)³⁶⁾: ㅎ-(爲)

34) ‘잇.’ 대신에 ‘잇그.’를 어간으로 설정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지만 본고에서는 ‘잇.’을 어간으로 설정했다. II.1에서 언급했듯이, 파생과 활용의 양상은 분명히 차이를 보였다. 일반적인 용언의 활용이라면 어간의 말모음 ‘.’나 ‘-’는 탈락해야 한다. 반면에 파생의 경우에는 ‘.’나 ‘-’가 탈락하지 않는다. (28)의 ‘잇기이니’는 접미사에 의한 파생어이므로 ‘.’나 ‘-’가 탈락하지 않아야 한다. 만약 어간이 ‘잇.’가 아닌 ‘잇그.’라고 한다면, 파생어는 ‘잇그이니’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잇기이니’로 문중되기에 어간은 ‘잇.’로 설정되어야 한다.

35) 남광우(1962: 16)는 ‘-이아.’ 이중 피·사동접미사의 예로써 ‘이어-(搖)’의 피동사인 ‘이애어.’를 제시했으나 이러한 예는 발견할 수 없었다.

36) ‘ㅎ.’의 파생어인 ‘ㅎ이다’는 보통 사동사로 쓰였으나, 17세기에는 아주 적으나

文翁이 能히 時俗 教化호물 오직 보디웨 李廣의 諸侯 封히이디 몬호물
어는 알리오 (두시언해, 초간본, 21: 16b)

cf) 使는 히여 호는 마리라 (훈민정음언해, 3a)

늘근 사름 더브러 무루물 츠마 히디 몬호노니 (두시언해, 초간본, 3: 62b)

남광우(1962)는 이중 피·사동접미사 ‘-이-’의 예로써 다양한 예들을 제시하면서 다소 특이한 관점에서 설명을 시도하고 있다. 남광우(1962: 18)는 (27ㄱ), (27ㄴ), (27ㄷ)에서 이중 피·사동접미사 중 첫 번째 접미사인 ‘-이-’는, 두 번째 접미사인 ‘-이-’에 역행동화 된 것으로 그 결과가 ‘-이이-’ 이중 피·사동접미사와 같아졌다고 제시한다. 만약 남광우(1962)의 설명을 따르면, ‘·’, ‘-’로 끝나는 선행어기가 피·사동접미사와 통합할 때 선행어기의 말음 ‘·’, ‘-’가 탈락하지 않는 이유를 자연스럽게 설명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설명은 (22ㄷ)의 ‘픽우-’, (22ㄹ)의 ‘칙오-’, (22ㄷ)의 ‘티오-’ 등의 ‘-이우-’ 형 이중 피·사동접미사에는 적용될 수 없다. 즉, 남광우(1962)는 피·사동접미사가 ‘·’나 ‘-’를 말음으로 가지는 선행어기와 통합할 때 탈락하지 않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방책으로 ‘이모음 역행동화’를 제안했으나, 그것은 일관된 설명이 아니다. 이미 이중 피·사동접미사라는 개념을 설정해 두고서, 하나는 ‘이모음 역행동화’에 의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중 피·사동접미사에 의한 것이라는 설명은 타당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IV. 맺음말

이상으로 15세기 중세한국어의 단일 피·사동접미사와 이중 피·사동접미사의 형태소 목록을 검토해 보았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고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피동형으로 쓰인 예도 있었다(남광우 1962: 16).

임진왜난의 ㅁ을 거집들히 다 예게 오육히이더니 (동국신속삼강행실도, 열녀, 6: 80b)

- (28) ㄱ. 15세기 중세한국어의 단일피동접미사는 ‘-이(i)-, -이(hi)-, -하-, -가-’ 등의 네 개이며, 단일사동접미사는 ‘-이(i)-’, ‘-이(hi)-’, ‘-하-’, ‘-오(o)/우(u)-’, ‘-오(ho)/우(hu)-’, ‘-호/후-’, ‘-고-’, ‘-으/오-’ 등의 여덟 개다.
- ㄴ. 현대한국어에서 ‘채우다’, ‘재우다’, ‘띄우다’ 등에서 나타나는 ‘-이우-’ 사동접미사는 단일사동접미사로서 설명할 수 없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우-’를 이중사동접미사로 설정하고 이것은 15세기 중세한국어자료에서도 문증됨을 확인했다.
- ㄷ. 이중 피·사동접미사는 단일 피·사동접미사 모두가 생산적으로 결합하여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중 피·사동접미사를 구성하는 단일 피·사동접미사는 ‘-이(i)-’, ‘-이(hi)-’, ‘-우(u)-’, ‘-오(ho)/우(hu)-’ 등이다.
- ㄹ. 이론상 이중 피·사동접미사가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이-}계열+{-이-}계열’, ‘{-이-}계열+{-오/우-}계열’, ‘{-오/우-}계열+{-이-}계열’, ‘{-오/우-}계열+{-오/우-}계열’ 등 네 가지다. 이 중에서 실제로 피·사동접미사로 쓰이는 계열은 첫 번째인 ‘{-이-}계열+{-이-}계열’뿐이었다. 그 외 나머지 유형들은 이중사동접미사로만 문증된다.

참고 문헌

- 고영근(1997), 『개정판 표준중세국어문법론』, 집문당.
- 구본관(1998), 『15세기 국어 파생법에 대한 연구』(國語學叢書 30), 태학사.
- 국립국어연구원 편(1999),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 김주필(1988), 「15세기 피동접미사의 이형태와 그 분화과정에 대하여」, 『冠嶽語文研究』 13, 서울大學校 國語國文學科, 45-71.
- 남광우(1962), 「사동·피동형의 역사적고찰: “-이-, -우-” 보조어간이 붙는 것을 중심으로」, 『국어학논문집』, 일조각.
- 송철의(1992), 『국어의 파생어형성 연구』(國語學叢書 18), 태학사.
- 안병희(1959), 「15세기 국어의 활용어간에 대한 형태론적 연구」, 『國語研究』 7, 국어연구회(1978년 탑출판사 재간).
- _____(1978), 『15세기 국어의 활용어간에 대한 형태론적 연구』, 탑출판사.
- 안병희·이광호(1990), 『중세국어문법론』, 학연사.
- 이기문(1998), 『신정판 국어사개설』, 태학사.
- 이상억(1980), 「사동 피동어간형성 접미사에 대한 고찰」, 『어문논집』 21, 민족어문학회.
- 임홍빈·장소원(1995), 『국어문법론 I』, 한국방송대학교출판부.
- 최명옥 외(2002), 『함북 북부지역어 연구』, 태학사.
- 한글학회(1992), 『우리말큰사전 4: 옛말과 이두』, 어문각.
- 한재영(1984), 「중세국어 피동구문의 특성에 대한 연구」, 『國語研究』 61, 국어연구회.
- 허웅(1975), 『우리 옛말본: 15세기 국어 형태론』, 샘문화사.